

지난 6월 18일, 인천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연대 시민,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3일간 인천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걷는 것이 이 대행진의 목적이었어요. 연구소 상임활동가들도 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이 행진에 모인 사람들은 30도 가까운 더위를 견디고 내리는 비도 맞으며 걸었는데요. 이들이 행진에 참여한 이유는 택시 업계 공짜 노동을 뿌리 뽑으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고영기 택시노동자와 연대하는 행진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운수분회 사무장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지난 3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사무소 인근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택시 운전 시간과 운행 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데,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 일하고도 그보다 훨씬 적은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기 일쑤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잇따른 고공농성으로,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2019년 이루어졌지만, 예외와 유예 조항으로 아직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회사당 보유 면허 대수의 40%에 해당하는 노동자까지는 이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은 개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진 도착지가 청와대였던 이유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포괄임금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택시노동자 역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시간, 난폭 운전과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택시 노동자들은 월급제가 이루어진 후에야 승객이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합니다.

적정 시간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으며 건강을 보호받는 일, 택시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7월에는 더 많은 이들이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건강에 관심 두게 되길,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